

#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 지양을 위한 개신교의 역할 연구

- 내셔널리즘에 대한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박광우 (명지대학교, 교목)

- I. 들어가는 말
- II. 자기동일성에 기초한 내셔널리즘
- III. 그리스도교 신앙: 개성 인정 및 실존의 불안 극복의 길
- IV. 그리스도교를 통한 내셔널리즘의 지양
-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2.02>

\* 본 논고는 2025년 4월 26일 “광장으로 나온 개신교: 개신교 신앙의 스펙트럼과 정치주체화의 지형도”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술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 ABSTRACT •

---

A Study on the Role of Protestantism in Overcoming State-led Nationalism: Focusing on Friedrich Schleiermacher's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Nationalism

Chap. Dr. Kwangwoo Park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can overcome state-led nationalism, based on Schleiermacher's Christian-ethical understanding. For Schleiermacher, nationalism—binding diverse individuals into a certain identity in pursuing the highest good—marks the starting point for self-consciousness and ethical life. Religion, expressing reverence for the whole and self-effacement through individuality, is embodied in the church following Jesus of Nazareth. While affirming the state's ethical role, Christianity resists its self-absolutization through the diverse workings of the Holy Spirit. The church must critically empathize with the historical roots of nationalism, dismantle egocentrism through the gospel, and serve as a model community transcending nationalism.

**Key words:** Schleiermacher, Nationalism, Individuality, Self-emptying, Solidarity with the Other

---

## I. 들어가는 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평온하던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뒤집어지고 말았다. 국회의사당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어닥치고, 놀란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그들을 막는 초유의 사태였다. 간신히 국회의 빠른 결정으로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헌법 질서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선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우 개신교의 활동과 주장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강화했다. 대다수의 시민은 계엄령 선포와 탄핵 과정에 전적으로 찬성했으며 헌법 정신을 부정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극우 개신교 진영이 편향적인 뉴스를 계속 전달 및 산출하고 음모론에 기초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 정권이 한국 사회를 장악했다는 음모론을 확대 생산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북한과 중국에 의하여 장악된 국회, 그리고 그들에 의해 자행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이 구속되자,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으로 쳐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재판관을 위협했다. 이들이 미디어의 많은 주목을 받아, 시민사회는 그들을 한국 개신교의 대표 세력인 양 여긴다. 한국 개신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극우 개신교는 사회갈등의 뿌리이며 개신교의 사회 참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극우 개신교 진영은 왜 저런 음모론에 입각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소위 ‘반공주의’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 개신교가 추종하는 반공주의는 일제 식민 지배 때부터 일어난 기독교와 공산주의 운동 간의 갈등, 해방 후 사회 주도권 다툼 및 한국 전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sup>1)</sup> 하지만 이들의 반공주의 추종은 단순히 기독교가 공산주의 및 북한 정권에 대하여 가지는 원한 감정에만 기대어 있지 않다. 반공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한 것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큰 영향을 미친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이기 때문이다.<sup>2)</sup> 강정인에 따르면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한편으로는 단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자부심에 국권 강탈, 식민지 경험, 분단과 6·25 전쟁의 체험 등이 덧씌워짐으로써 형성된 손상된(상처받은) ‘민족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시기 박탈당한 국가에 대한 강렬한 집착, 일제강점기[에] 부과되고 내면화된 파시즘적 국가관, 남북한에서 분단국가가가 민족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고집하는 분단국가주의 등이 한데 응축된 ‘국가주의’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국가민족주의로 출현하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을 근간으로 한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은 정권 안정성을 위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 이용했다. 한국 보수 개신교는 이러한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에 편승하고 찬성함으로써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였다.<sup>4)</sup>

1) 이에 대하여 참조. 교영은, “한국교회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52(2016), 867-893.

2)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보통 민족주의로 번역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혈통적 동일성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아 내셔널리즘의 다른 측면, 이를테면 다민족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일치(미국의 경우), 또는 시민사회의 형성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간의 일치(프랑스의 경우)를 잘 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내셔널리즘으로 표기하여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3) 강정인,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근대화 민족주의 담론,” 『사회과학연구』 20(2012), 43.

4) 참조. 이병성,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59-190. 특히 165-175;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 5-39.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에 대한 개신교 윤리 고찰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 개신교 윤리학계는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타자 윤리적 관점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추세이다.<sup>5)</sup>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한국 극우 개신교가 보여준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 추종은 두려움과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 이해를 요구한다. 한국의 근현대 상황 속에서 저 내셔널리즘은 어찌면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1차 세계대전의 피해와 거의 엇비슷할 정도로 치열했던 한국 전쟁의 여파는 삶의 생존을 위한 강한 단결력과 응집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변경은 강력한 지도력에 근거한 일사불란한 사회를 요구하는 듯하다. 그래야 두려움과 불안이 극복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사회도 바뀌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사람의 의지와 뜻만을 추종하는 독재를 지나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소통되는 가운데 합일점을 찾는 민주사회이다. 또한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요구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딛고 넘어서야 할 역사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에 대한 개신교 윤리적 고찰은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지양하여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sup>6)</sup>

5) 대표적으로 참조, 곽호철, “한국 기독교의 민족적 타자 차별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신학과 사회』 37(2023), 1-30.

6) 여기에서의 지양(Aufheben)은 헤겔(Georg Wilhelm F. Hegel)이 주창한 의미를 따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동하는 실체가말로 참으로 주체적인, 다시 말하면 참으로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실체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운동이며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기를 타자화하는 가운데 자기와의 매개를 행하기 때문이다. 실체가 곧 주체라

여기에 대하여 19세기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1768-1834)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이해는 일련의 통찰을 준다. 쉐라이어마허가 살던 시대의 독일은 프랑스 대혁명과 그에 따른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시대의 격변 속에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 당시 태동하던 내셔널리즘을 자양분 삼아 국민징병제를 시행하여 전 유럽을 상대로 한 전쟁을 승리했다. 이를 목격한 독일의 지식인층은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태동한 여러 가치, 특별히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다.<sup>7)</sup> 내셔널리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내셔널리즘은 나폴레옹의 지배에 저항하는 가운데에서 배태되었으며 발전했다. 쉐라이어마허는 이러한 독일 내셔널리즘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그는 나폴레옹을 절대정신의 현현으로 여기면서 환영했던 헤겔과 달리 독일만의 방식으로 개진될 내셔널리즘을 방해하는 인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저항했다.<sup>8)</sup> 하지만 동시에

---

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체에 순수하고도 단순한 부정성이 작용하면서 바로 이로 인하여 단일한 것이 **분열**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렇듯 분열되는 데서 오는 대립이 이중화됨으로써 분열된 양자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차이와 대립을 빚는 그런 상태는 **부정**된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동일성, 다시 말하며 밖으로 향하면서 곧 다시 자기 자체 내로 반성·복귀하는 움직임, 즉 최초로 있던 직접적인 통일과는 **다른** 이 두 번째의 동일성이 바로 진리이다.”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1』 (파주: 한길사, 2005), 52. (강조는 필자의 것)

- 7) 당시 독일의 프랑스 혁명 수용 및 해석에 대해서 참조. Miriam Rose, *Schleiermachers Staa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0-106.
- 8) “아마 자네는 지금도 프랑스 군대에 대항해서 행진하고 있겠지. 나는 정말 자네를 부러워할지도 모르네. 나는 저 독재자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기쁘고 우리 군대와 국민이 지니는 전반적으로 용감한 정서가 참 즐겁다네. [...] 이미 나에게는 정치적인 언명을 크게 말할 용기가 있다네. 만약 내가 그것을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 말일세.”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Brief an J. E. Th. von Willich, Halle, Montag, 15. 9. 1806,”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이하 KGA) V/9. *Briefwechsel 1806-1807*, hg. Andreas Arndt und Simon Geber (Berlin: Walter de Gruyter, 2011), 140.

그는 나폴레옹 이후 독일 내셔널리즘이 자기 절대화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리스도교 윤리학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다.<sup>9)</sup> 이러한 그의 내셔널리즘 이해는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수용하게 하면서 동시에 넘어서도록, 다시 말하자면 지양의 과정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본 소고는 술라이어마허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이해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을 넘어서는 방도를 찾아 한국의 건강한 사회 이룩함에 개신교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술라이어마허가 어떻게 내셔널리즘을 이해하고 그것의 윤리적 의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내셔널리즘의 기초에 놓인 자기중심주의를 종교, 특별히 개신교를 통하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그 후 술라이어마허의 이해에 따라 개신교가 어떻게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을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와 국제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지 현상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술라이어마허의 통찰을 근거로 현 상황 속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돌아본다.

## II. 자기동일성에 기초한 내셔널리즘

술라이어마허가 활동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독일 사상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는 바로 윤리였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그의 비판철학을 통하여 인간 인식의 한계를 밝히고 형이상학 작업의 무의미성을 밝혔다. 이제 이성은 “실천 영역에서의 “참”이라고 할

9) 참조, 박광우,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연구: 술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11(2023), 73-109.

수 있는 선품을 형이상학적으로 모시기 위해 선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up>10)</sup> 술라이어마허 역시 여기에 일찍부터 응답하였다. 학생 시절 그가 작성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8장과 9장 주석에서 술라이어마허는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는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느낌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논의를 시작한다.<sup>11)</sup> 즉 윤리 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행복과 다른 사람과의 인정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지가 술라이어마허의 윤리적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 때 술라이어마허는 칸트를 위시한 철학자들이 인식주체의 이성을 중심으로 윤리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비판한다. 칸트나 피히테는 우리가 선하게 행해야만 한다는 의무와 다른 사람의 필요, 그리고 윤리 주체의 느낌 간의 일치는 모두가 공유하는 이성에 입각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술라이어마허는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먼저 칸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윤리성은 윤리 주체의 주관적 조건과 결부되지 말아야 하기에 그저 추상적인 형식에 머무른다. 피히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칸트의 기획 중 인식주체의 능동성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는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자아와 그 자유, 그리고 그의 이성에 입각한 양심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 자아를 절대적으로 격상시켜 객관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격이다. 이에 따라 윤리는 자아의 자기 추구 및 확장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렸다.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인식주체로부터 윤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 즉 “어떤 문제나 시스템을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10) 정재현, 『신학은 인간학이다. 철학읽기와 신학하기』 (왜관: 분도 출판사, 2003), 248.

11)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Anmerkungen zur Nikomachischen Ethik,” in ders., KGA I/1. *Jugendschriften 1787-1796*, hg. von Günter Meckenstoc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4), 3.

완전한 윤리적 상태 — 진정한 올바름이나 선함 — 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 굳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결함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 어떤 상태를 그냥 ‘필요한 단계’나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면, 결국 그 토대 위에 쌓이는 모든 것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잘못된 상태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2)</sup>

슐라이어마허의 윤리학은 최고선(Das höchste Gut)의 전개 과정에 이미 살고 있는 개인(Individuum)이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이는 활동을 기술(記述)한다. 최고선은 “모든 것의 총괄”이기에 인 주체를 중심으로 한 윤리 체계들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 즉 의무를 우선으로 둘 것인지 덕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sup>13)</sup> 또한 최고선은 모든 선(善, Gut)을 아우르면서도 부정하기에 윤리 진흥의 동기이다. 최고선은 개인의 활동을 통한 선의 생산 및 산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개인에게서 보편적인 최고선 또는 인간성과 개성 및 구체성인 삶의 자리가 맞닿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슐라이어마허에게

12)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Grundlinien einer Kritik der bisherigen Sittenlehre*, in ders., KGA I/4. *Schriften aus der Stolper Zeit (1802-1804)*, hg. von Eilert Herms, Günter Meckenstock und Michael Pietsch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312.

13)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Über den Begriff des höchsten Gutes. Erste Abhandlung,” in ders., KGA I/11. *Akademievorträge*, hg. von Martin Rössler unter Mitwirkung von Lars Emersleb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544

14) “이제 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인간성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각자는 인간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자신만의 고유한 조합으로 구현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성은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형태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 안에서 탄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Monologen. Eine Neujahrs-gabe*, in ders., KGA I/3. *Schriften aus Berliner Zeit (1800-1802)*, hg. von Günter Meckenstoc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18.

있어서 윤리란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최고선이 개진되어 가는 삶, 즉 “이성(이치)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기술하고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사에 대한 학문”이다.<sup>15)</sup>

내셔널리즘의 근간인 국민 일체성(Nationaleinheit)은 동일성(Identität)을 중심으로 최고선을 추구하는 윤리 활동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인간성은 최고선과 같은 층위에 있다. 슐라이어마허는 이러한 인간성이 남성과 여성을 통하여 제일 먼저 의식된다고 주장한다. 이념으로서의 인간성은 남녀 각자의 육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성적 결합에 기초한 부부관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는 가족은 인간성이 남녀 각자의 개별적 이해를 넘어선 동일한 이해 지평에 다다른 상태이다. 그러나 가족 역시 인간성 전체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이다. 그래서 각 가족 안의 동일성은 다른 가족과의 통혼(Konubium)을 통하여 더 넓고 높은 차원의 동일성으로 나아간다. 이 동일성이 곧 씨족(Horde)의 구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국민 일체성이다. “한 가족 집단이 통혼을 통하여 서로 결합되고 다른 가족 집단으로부터 배제될 때” 그들만의 고유한 동일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6)</sup> 이 동일성은 “개인이 속한 가족의 개별성들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이 최고선을 지향하며 이성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기능이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 기능이 벌어지는 영역이 공동으로 일치하는 차원에서 정립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sup>17)</sup> 국민 일체성은 인간성을 개별적으로 담지한 개인, 그리고 가족들이 인간성 또는 최고선을 더 완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형성된 자기동일성

15)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Ethik (1812/13) mit späteren Fassungen der Einleitung, Güterlehre und Pflichtenlehre*, Auf d. Grundlage d. Ausg. von Otto Braun, hg. u. eingel. von Hans-Joachim Birkner (Hamburg: Meiner, 1981), 11.

16) 위의 책, 93.

17) 위의 책, 94.

이 점진적으로 확장된 형태이다.

국가는 자기동일성을 기초로 하는 민족 공동체이다. 국가의 윤리적 과제는 국민의 자기동일성, 곧 국민 일체성을 유지 및 함양하는 것이다.<sup>18)</sup> 국가는 경제 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개인과 집단, 지역 사이에서 부의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물질적 차원에서 국민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교육 정책을 통하여 동일한 정신 가치를 함양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자기동일성을 정신적 차원에서 유지 및 전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자기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사법권을 행사하고 국외적으로는 외교와 방어 전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자기동일성에 근거한 안전과 윤리적 개진이 가능해진다.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 화폐, 척도 등을 보장하여 각자의 자유 개진이 공동의 지평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대표하는 내셔널리즘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내셔널리즘이 가리키는 국민 일체성은 개인과 국민의 개별성을 보장한다. 개인과 인류 전체 중간에 있는 국민 또는 민족은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같은 집단의 자기동일성을 정초한다. 개인의 개성은 공동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개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일체성은 한 민족과 국민을 다른 민족 및 국민과 구분시킨다. 국민 일체성은 각 민족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형성된 자기동일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최고선 및 인간성은 이제 국민 일체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실이 된다. 국민 일체성 자체가 그 민족과 국민이 최고선 및 인간성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개진했다는 사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18) 참조.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Die Lehre vom Staat (Nachschriften Heß und Willich, 1829)," in ders., KGA II/8, *Vorlesungen über die Lehre vom Staat*, hg. von Walter Jaeschke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8), 377-491.

점에 있어서 내셔널리즘과 국가는 최고선 및 인간성을 개진하는 문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국가와 내셔널리즘은 최고선 및 인간성의 민족적인 실현이자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국민 또는 민족의 자기동일성에 기초한 국가와 내셔널리즘은 최고선을 향해 가는 인간의 윤리적 활동으로부터 산출된다. 인간은 국가와 내셔널리즘이 담지하는 자기동일성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향해 나아갈 목표 지점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보편적인 이념으로서의 인간성, 최고선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만 의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리즘이 담지하는 자기동일성은 인간의 윤리적 삶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그 생존을 보장하는 윤리적 의의를 지닌다.

### III. 그리스도교 신앙: 개성 인정 및 실존의 불안 극복의 길

슐라이어마허는 그 당시 도덕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종교를 도덕에 종속시키는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는 최고선 전개 과정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가진다.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감정의 본래적 자리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삶은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원리로서의 이성,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인 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감정은 인식주체가 능동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영향받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종교는 “오로지 인간만을 모든 관계의 중심점으로, 모든 존재의 조건으로, 모든 형성의 원인으로” 보는 형이상학과 도덕과 다르게

19)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Brouillon zur Ethik (1805/06)*, Auf d. Grundlage d. Ausg. von Otto Braun, hg. u. eingel. von Hans-Joachim Birkner (Hamburg: Meiner, 1981), 23-24.

“인간 속에 무한자를 보며 그 각인된 흔적과 연출”을 본다.<sup>20)</sup> 종교는 윤리 과정에서 최고선으로부터의 수동적 영향을 강조하기에 능동성을 중심에 둔 도덕에 종속될 수 없다.

이러한 종교는 개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체의 생생한 실재를 보여준다. 술라이어마허의 종교 이해 핵심은 전체에 대한 직관이다. 여기에서 직관은 “직관되는 존재가 직관하는 존재에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직관하는 존재의 본성에 따라 받아들여지고 종합되며 파악되는, 직관되는 존재의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행위로부터 출발한다”.<sup>21)</sup> 종교는 삶 전체가 - 술라이어마허는 이를 우주(Universum)이라고 표현한다 -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영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하는 개성 역시 담지한다. 그렇기에 종교적인 삶이란 삶의 모든 순간과 행위들, 사건들을 삶 전체의 영향에 따른 것, 삶의 행위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는 모든 개별자를 전체의 부분으로, 모든 제약자를 무한자의 표현과 서술로 받아”들인다.<sup>22)</sup> 삶 전체의 영향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의해 개성적인 방식으로 의식되고 표현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그만의 방식으로 그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만의 방식으로 의식 및 표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는 전체와 개성을 모두 포괄한다는 차원에서 역설적이다. 다양한 개성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무한한 혼돈”이야말로 종교의 적절한 상징이지만,<sup>23)</sup> 동시에 그 다양한 개성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의존하며 연관된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속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동일하면서도 하나이자

20)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최신한 역, 『종교론 -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7.

21) 위의 책, 60.

22) 위의 책, 61.

23) 위의 책, 64.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정신의 행위를 발견”하고 담지한다.<sup>24)</sup> 종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개성을 통하여 그 토대인 전체가 실재한다는 점이 증명되며, 그 개성은 전체에 대한 생생한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어떤 특정 관점을 절대적으로 격상하여 다른 관점이나 삶에 대한 이해를 소외하거나 배제하는 체계화를 배격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교에서 나타나는 전체에 대한 개성적인 관점은 전체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유한성에 따른 결과이다. 그렇기에 모든 이는 “우연적인 상태와 사사로운 일”을 지닌다.<sup>25)</sup> 그러나 자신만의 관점을 절대적이라고 이해하며 다른 이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적인 사람은 전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자기의 행위와 충동을 촉진시키지 않는 것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이 이에 대립한다.”<sup>26)</sup> 종교는 이러한 체계화 시도에 개성을 통하여 정면으로 도전한다. “자신이 우주의 영향 속에 있고 그것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사람 -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이 사람이 곧 경건한 자이다 - 자신이 개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자신처럼 우주를 드러내는 개성적 존재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sup>27)</sup> 진정한 종교는 전체에 대한 눈을 열어줌으로써 그 다양한 발현을 돌아보게 하고 타자의 관점 역시 인정하게 만든다. 종교는 존재에 대한 경탄을 낳으며 대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sup>28)</sup>

24) 위의 책, 99.

25) 위의 책, 64.

26) 위의 책, 67.

27) 박광우, “개성 강조, 대안 공동체 구상, 연대적 관계 제시 - 슐라이어마허의 성령론적 윤리학을 통해 돌아본 현대 한국 개신교 윤리학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60(2025), 19.

28) 한상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옹기 말한다. “그러므로 우주에 대한 직관과 감정으로서의 종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심판하는 자로서의 나와 심판할 대상으로서의 너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일이다.** [...] 그들은 순수한 인간이며, 그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러한 종교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중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이다. 술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종교는 스스로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의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삶의 주인,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술라이어마허는 이러한 종교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완전히 개신되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다 - 이것이 그리스도교 창조 교리의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아를 중심으로 자신과 삶을 의식하기에 본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자기중심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삶을 구성하여 타자와 대립하고 그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 존재의 본래 의미,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전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만이 삶의 주인이시자 주체임을 놓치지 않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갔다. 예수의 삶은 하느님의 전적으로 이끌어가심과 이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인 실존 간의 조화로운 교호적 관계 자체이다.<sup>29)</sup> 그렇기에 그는 자기를 중심에 둔 존재와 삶 이해, 즉 죄가 전혀 없다. 그의 삶은 전적인 자기부정이자 자기비움이다. 그는 인간의 본래 존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간의 원형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본래의 인간을 역

---

순수한 인간으로 발견함으로써 나 또한 나 자신에게 순수한 인간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 체계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됨은 결코 공동 현존재와의 함께 있음의 회복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물리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한낱 물질적 사물에 불과하던 존재자들조차 이제는 **체계의 이념을 넘어선 무한한 우주의 서술과 표현으로서, 우주의 특별하고 개별적인 드러남**으로서 발견된다. 이러한 발견은 결국 현존재로 하여금 **모든 존재자들과 함께 있게** 한다.” 한상연, 『공감의 존재론』 (서울: 세창, 2019), 95-96. (강조는 필자의 것)

29) 참조,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 dargestellt. Zweite Auflage (1830/31)*, in ders., KGA I/13.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 dargestellt. Zweite Auflage (1830/31)*, hg. von Rolf Schäfer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이하 CG<sup>2</sup>), Bd. 2, 83.

사 속에 보여준 모범이다.<sup>30)</sup>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교가 전적인 자기부정과 자기비움을 보여주고 인간을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로 제시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삶의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슬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의식은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 ‘준비시키는 은총’(vorbereitende Gnade)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슬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 전적인 의존적인 존재인 환구원받은 삶,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잊혀진 삶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고 고백한다. 자기중심적으로 풀 지어진 예전의 삶에서는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또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준비시키는 은총이 그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 은총이 바로 나사렛 예수,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이 그 은총을 통해 예전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행위는 “이미 준비시키는 은총을 통하여 그의 안에 정립된 바가 함께 작용”한다. 그렇기에 이는 “하느님 은총 역사의 한 부분”이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행하는 바가 아니다.<sup>31)</sup>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자기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이루는 것은 전혀 없다. 그의 자유는 자기 자신을

30) 안네 케퍼(Anne Käfer)는 그녀의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sschrift)에서 슬라이어마허의 창조론과 성육신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나사렛 예수를 두 번째 아담, 즉 인간의 원형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로 그렸는지 훌륭하면서도 상세하게 분석했다. 참조, Anne Käfer, Inkarnation und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sche Voraussetzungen und Implikationen der Christologie bei Luther, Schleiermacher und Karl Barth*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0), 85-209.

31) CG<sup>2</sup>, Bd. 2, 188.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의식과 현실화를 위한 통로이다.<sup>32)</sup>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났기에 더 이상 타인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자요 그만의 자유를 통하여 나와 다른 방식으로 그 은총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이다. 타자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기는 존재가 아니라 - 두려움과 불안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고 형성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 나와 더불어 하느님 은총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이다. 자신이 은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은총에 힘입어 살아간다고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자신의 계명으로 내세운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뭔가를 금지하는 율법”이 아니다. 그 계명은 그리스도인의 현존을 기초하는 나사렛 예수의 “구원하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sup>33)</sup>

그리스도인이 서로 모이는 가운데 구성되는 공동체인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성령(Das Heilige Geist)의 공동체이다. 슬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 성령은 어떤 초자연적인 실체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정신(Gemeingeist)이다.<sup>34)</sup> “그성령은 수많은

32) “우리가 이제 협력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미 우리는 인식 이전에 존재하는 한 형태의 협력, 즉 인간의 정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력을 인정했다. 반면 최소한의 저항, 즉 의지가 다른 방향을 향하는 상태는 이미 배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저항이 협력과 공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 기관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력 자체가 이미 의지의 동의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그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의 책, Bd. 2, 189. 슬라이어마허가 하느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연관시켰는지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참조. Hans-Peter Grosshans, “Gottsverhältnis und Freiheitsgefühl. Schleiermachers Theologie zwischen Neuzeit und Moderne,” in Andreas Arndt und Kurt-Victor Selge (Hg.), *Schleiermacher - Denker für die Zukunft des Christentum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1), 11-30.

33) CG<sup>2</sup>, Bd. 2, 227.

34) 여기에서 공동정신이란 영국 계몽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Public Spirit을 독일어로 옮긴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많은 개별적 인격성이 진정한 공동 생활 또는 법인 되도록 하는 진정한 통일성"이다.<sup>35)</sup> 성령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의식이 공동체적 차원으로 표상된 것이다. “성령이 운동하고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되었던 것과 말했던 것, 그리고 행했던 모든 것을 생동적이고 풍부하게 현재화하는 하느님의 활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sup>36)</sup> 이제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개별적인 발현으로 이해된다. 서로는 자기가 바라본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전달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령의 완전한 개진, 즉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의 보편화를 위해 나아간다.<sup>37)</sup> 여기에서는 누구도 소외될 수 없다. 소외란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특정한 관점을 중심으로 체계가 꾸려질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회는 비그리스도인까지도 품고 아우른다. “전체 인류는 이 영[성령]에 이미 속해 있”고, “성령은 이미 가진 자들과 아직 성령을 지닌 자들” 간의 차이점은 그저 “시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38)</sup>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

---

것이다. 이 정신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계층을 뛰어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만든다. 이 개념이 어떻게 독일에 수용되고 차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참조. Dorothee Schlenke, „Geist und Gemeinschaft“ *Die systematische Bedeutung der Pneumalogie für Friedrich Schleiermachers Theorie der christlichen Frömmigkei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319-351.

35) CG<sup>2</sup>, Bd. 2, 281.

36)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Erste Auflage (1821/22)*, in ders., KGA I/7.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Erste Auflage (1821/22)*, hg. von Hermann Peiter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0), Bd. 2, 198.

37) 여기에 대하여 참조. 박광우, “개성 강조, 대안 공동체 구상, 연대적 관계 제시 - 솔라이 어머허의 성령론적 윤리학을 통해 돌아본 현대 한국 개신교 윤리학의 과제,” 27-29.

38)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Die christliche Sitten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Zusammenhang dargestellt*, in ders., *Sämmtliche Werke* I/12. *Die christliche Sitten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Zusammenhang*

들이는 형제사랑의 공동체이다.

솔라이어마허에게 있어서 종교는 전체에 대한 눈을 열어주며 그 눈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종교는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그리스도교회와 형제사랑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및 삶의 방식으로 개진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살기 위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체계를 꾸려 타자와 대립 및 갈등하며 살 필요가 없다. 모두는 전체 안에서 평등하며 전체의 고유한 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을 통하여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자기비움의 존재라고 밝힘으로써 자기중심적 삶으로부터 기인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극복을 제시한다.

#### IV. 그리스도교를 통한 내셔널리즘의 지양

그리스도교 윤리는 인간 삶의 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피와 살을 지닌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그 피와 살을 지닌 진리, 한 실존으로서의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만이 인류 역사의 과정을 치유”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관념과 이상이 아니라, 역사에서 새로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지는, 기존의 관계들이 모든 사람과 선을 위하여 바뀌는 계기들”이다.<sup>39)</sup> 이는 솔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윤리 이해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교 윤리를 포괄하는 교리는 초시간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고 언제나 역사적 상황과 관계한다.<sup>40)</sup>

*dargestellt*, hg. von Ludwig Jonas (Berlin: G. Reimer, 1843) (이하 CS), 514.

39) Rowan Williams, *Tokens of Trust*, 김병준·민경찬 옮김,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 (서울: 비아, 2015), 120.

40) “그리스도교 교리의 표현은 각기 다른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시대는 서로 다른 필요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세기쯤의 표현이 현재의 교리와 같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리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CS, 9.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 핵심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점을 주어진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다루면서 윤리 방향을 제시한다.<sup>41)</sup>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삶의 정황이 서로 만나는 가운데 나타나며 그 씨름의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술라이어마허는 국가를 그리스도교 윤리 개진의 장(場)으로서 본다. 그리스도교회는 국가의 존재와 그것의 윤리적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를 “주어진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 “용인되는지 거부되는지, 그리고 수정되었는지” 등을 고찰할 뿐이다.<sup>42)</sup> “그리스도인 개인은 그가 속한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교의 덕목들을 보여주는 데에 힘쓰고 어디서나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야 하지만 동시에 그가 속한 각각의 공동성에 있어서 공동의 감정이 그리스도교 원리의 요구와 일치되도록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한다.”<sup>43)</sup> 술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세계시민주의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도외시하는 자들은 혼동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저 거대한 조화와 저 막강한 도움들즉, 전체를 의미하는 하느님의 가족과 그것이 각 민족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을 외면하는 자는 그가 개별자로서 다른 개별자에게 작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전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자이기 때문이다.<sup>44)</sup> “오히려 애국심에 충실한 사람일수록 인류

41) “우리의 주요 명제는 결국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속자라는 것이다. 그를 그저 일반적인 개념으로 유지하고 ‘그리스도’나 ‘구속자’를 불특정하게 남겨두면, 사실 모든 이단자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술어를 지정하기 시작하면, 그로써 그는 실제로 기독교 교리의 표현이 된다. 그러면 그 역시 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위의 책, 11.

42) 위의 책, 241.

43) 위의 책, 630.

44)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Wie sehr es die Würde des Menschen erhöht, wenn er mit ganzer Seele an der bürgerlichen Vereinigung hängt, der er angehört,” in ders., KGA III/1. *Predigten. Erste bis Vierte Sammlung (1801-1820) mit den Varianten der Neuauflagen (1806-1826)*, hg. Günter Meckenstock

전체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민족 특징으로써 다른 민족 공동체 구성원과 구분되지만 바로 그 특징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인간성 개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깨닫기 때문이다.”<sup>45)</sup> 국가는 그리스도교 윤리,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에 따라 자기를 비우고 타자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개진되는 곳이다. 국민 일체성 그리고 국가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역사 속에 실현되는 와중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통과점(Durchgangspunkt)”이다.<sup>46)</sup>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이 국가와 국민 일체성이 결코 궁극적인 완성이자 윤리적 목표 그 자체라고 상정하지 않는다.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 일체성은 윤리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이 개진되어 가는 가운데 나타난 산물이다. 즉 그것은 과정의 산물이자 종착점이 아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이를 절대적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로 나누어서 살핀다. 절대적 공동체란 나사렛 예수의 하느님 의식, 즉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며 그의 뜻이 완전히 관철되는 세상, 성령의 지배가 보편적으로 완성되는 경지인 하느님 나라(Reich Gottes)이다. 그리스도교회는 하느님 나라가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자연을 다스리는 윤리 과정의 시작이자 종결이라고 해석한다. 그리스도교회는 “성령(ἅγιον πνεῦμα)이 일반적 원리(κοινός λόγος)를 자기와 일치”시킨다는 관점으로서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의 완성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자연이 완전히 다스려지고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 작용이 드러나는 경지라고 보기 때문이다.<sup>47)</sup> 이러한 절대적 공동체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민족 공동체가 있다. 각 민족이 지니는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255.

45) 박광우,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연구: 슐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84-85.

46) CS, 446.

47) 위의 책, 649.

특성은 저 절대적 공동체의 원리이자 정신이 각 민족의 정황에 맞추어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각 민족과 그 민족 공동체는 절대적 공동체의 다양한 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통과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민족 공동체와 국민 일체성은 절대적 공동체의 통과점이면서 구체적인 현실이지만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것의 토대이자 목표인 절대적 공동체, 하느님 나라이야말로 궁극적이기 때문이다. “국민 일체성이 궁극적인 관계 지점인 곳, 거기에는 자기사랑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며, 따라서 비윤리적이다.”<sup>48)</sup> 그리스도교회에 있어서 국민 일체성, 그리고 국가는 인간 윤리의 궁극적 완성인 절대적 공동체, 즉 하느님 나라 현실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회는 국민 일체성과 거기에 근간한 내셔널리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양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슐라이어마허는 국내적 차원의 사법 집행과 국외적 차원의 전쟁 이해를 통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법 집행을 보도록 하자.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법(Gesetz)”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의지의 표현으로”, 여기에서 “모든 개인은 똑같은 의지를 가진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법이란 충분한 의지의 힘과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sup>49)</sup> 따라서 법에 따른 사법 집행은 법률이 기초하고 있는 자기동일성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그 동일성에서 벗어난 자들을 되돌리는 수단이다.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은 사법 집행을 정당화하고 인정한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으로 보자면, 국가의 자기동일성에서 벗어난 자들, 즉 사법 집행의 대상자는 성령 개진을 부분적으로 성취한 국가를 거부하여 그 완전한 개진을

48) 위의 책, 476.

49)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Christliche Sittenlehre (Vorlesung im Wintersemester 1826/27). Nach größtenteils unveröffentlichten Hörernachschriften und nach teilweise unveröffentlichten Manuskripten Schleiermachers*, hg. u. eingel. von Hermann Peiter (Berlin: LIT Verlag, 2011) (이하 CS 1826/27), 194

방해하거나 막기 때문이다. 사법 집행은 사회 전반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만연하고 퍼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수단이다.<sup>50)</sup> 국민 일체성, 자기동일성에 기반한 국민 일체성을 위한 법과 사법 집행은 그리스도교의 정신, 즉 성령이 완전히 개진되는 데 이바지한다.

하지만 슬라이어마허는 이러한 사법 집행과 법이 국가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논의에서 비추어보자면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 자체를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슬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사법 집행은 복수에 근거하지 않는다. 사법 집행은 성령의 개진이 상대적으로 구현된 국민 일체성,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진된 성령의 운동에서 벗어난 자들을 원래 궤도로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형이나 고문, 교도소에 갇힌 자의 예배 제한은 용납될 수 없다. 사형과 고문은 성령의 개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그 건강을 상하게 하고, 예배의 제한은 비록 회복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개진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체험 표현을 막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이 빠진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절박한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모든 형벌을 배격한다. 다시 말해 범죄자들의 실제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모든 형벌을 배제하는 것이다.”<sup>51)</sup> 이는 곧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에 법이 근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권과 개성 자체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 개성을 다 인정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의 모든 개별적 행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믿으며,<sup>52)</sup> “인간의 생명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50) “형벌이 오로지 법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법의 성격을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다. 즉, 형벌은 사회에서 단지 임시적인 제도로서 존재할 뿐이며, 결국에는 법을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신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위의 책, 193.

51) CS, 252. (Vorl. 1826/27)

전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sup>53)</sup> 더구나 그리스도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된 공동체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자기동일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국가의 자기성찰을 촉구하는 공동체이다.<sup>54)</sup>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개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여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이 자기 폐쇄성과 그에 따른 강압적 사법 집행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제 그리스도교회가 국외적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을 지양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그리스도교회는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방어 전쟁을 국가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인정한다. 솔라이어마허는 지구상에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고선의 개진이 다양한 삶의 자리와 환경, 그리고 언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지구 상에는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며, 각 민족은 그들 각각의 자기동일성을 유지 및 지속을 위하여 정부와 기관을 지닌다. 이렇게 볼 때 각 민족 국가,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이념인 내셔널리즘은 최고선의 다양한 개진 양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회의 관점으로 보자면 각 민족은 성령의 지배가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정 중에 상대적인 개진 양태이다. 만약 다양한 민족 공동체가 자기동일성을 상실한다면 성령 개진 과정의 다채로움과 다양성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회는 다양한 민족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기방어를 용인한다. 각 민족의 자기방어는 성령의 완전한 개진이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sup>55)</sup>

52) CS, 249.

53) CS 1826/27, 196.

54) 참조. 박광우, “개신교회의 사회적 의미 고찰 - 솔라이어마허의 신학적 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74(2024), 49-90.

55) 이는 솔라이어마허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전체 인류와 각 민족 공동체 간의 관계에 확대적용한 것이다. “누군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 정당화

하지만 그리스도교회는 이러한 국민 일체성 방어를 위한 전쟁을 언제까지나 성령의 개진이라는 전체 과정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기적인 내셔널리즘의 개진을 막는다. 슐라이어마허는 어떤 전쟁이 방어 전쟁인지 공격 전쟁인지에 대한 판가름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국제법(Völkerrecht)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서로 간에 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며, 이 상태가 그들을 하나의 전체로 만든다”. “어떤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정화하는 행위,” 즉 방어 전쟁은 “오직 이 법적 상태에 환원”되어야 한다.<sup>56)</sup>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전쟁은 다양한 민족 국가들이 공존하는 국제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사태이지만 - 각 민족 국가는 국민 일체성 및 자기동일성 확립 추구를 위하여 경쟁하고 때로는 대립하기 때문이다 - 언제나 국제법의 보전과 촉진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sup>57)</sup> 그리스도교적으로 보자면 국제법은 모든 민족 국가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 고유성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 국가와 소통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거기에서 어떠한 민족도 소외될 수 없다. 각 민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령 개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만의 산물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각 민족은 자유롭게 서로 소통 및 왕래하면서 성령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고 그들의 공동 토대인 성령의 완전한 현실화, 즉 절대적 공동체인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sup>58)</sup> 전쟁은 자유로운 왕래와 소

---

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그가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무죄로 간주된다.” CS 1826/27, 235.

56) CS, 274.

57)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공격을 방어하고 스스로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와 보호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것이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를 지향하고 이를 촉진하며 부분적으로 실현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S 1826/27, 231.

58) “이 요구 즉, 절대적 공동체에 대한 요구는 소유와 교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성적인 사람은 인류의 이름으로 각 민족의 재능과 자연 형성 과정이 전체를 위한 하나의 가치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각 민족은 자신의 재능 및 자연 형성 과정 속에 고립될

통이 끊긴 사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다. “종교적 입장은 - 굳이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말하지 않더라도 - 조국을 자기만을 위한 법인으로 만드는 애국심을 인정하지 않는다.”<sup>59)</sup> 그리스도교회는 모든 민족의 다양한 개성을 전체의 관점에서 보호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상기시킴으로써 국민 일체성과 내셔널리즘의 무분별한 자기확산을 막는다.

슐라이어마허의 구상에서 그리스도교회는 국민 일체성과 내셔널리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의 특징인 자기동일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 폐쇄성과 자기 절대성을 전체에 대한 상기를 통하여 넘어서게 한다. 국가 주도의 내셔널리즘, 그리고 국민 일체성은 자기동일성에 기초하고 있기에 전체를 자기로 환원하여 이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회는 그들의 이해 너머에 있는 타자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통한 전체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이렇게 그리스도교회가 드러내는 전체 앞에서 국민 일체성 및 내셔널리즘은 상대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교회는 민족 국가와 국민 일체성의 윤리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타자와 개성을 통해 드러나는 초월을 가리키면서 내셔널리즘을 지양한다.

## V. 결론

슐라이어마허의 윤리 구도에 따르면, 그리스도교회는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교회는 국민 일체성과 내셔널리즘이 삶의 자리로 주어진 윤리적 조건임을 인정하지만, 다양한 개성의 강조를 바탕으로 타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그것들의 상대성과 한계

---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민족이 그와 교류하는 바와 같이 그 역시도 다른 민족과 교류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절대적 공동체가 실현된다.” CS, 452.

59) 위의 책, 461.

를 드러내고 극복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회는 윤리적 이상을 향해 현실을 끌어안으며 포월(卹越)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슬라이어마허의 이해는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의 반공주의와 극우주의를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에 근거하여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개신교회는 반공주의와 극우주의를 태동시킨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이해하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이 생겨난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전쟁, 그리고 언제 북한의 침공이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다. 여러 정권은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고 이용했다. 이렇게 볼 때 반공주의와 극우주의에 휩쓸린 사람들 역시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한국 청년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잃어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sup>60)</sup> 하지만 소위 보수 진영과 극우 진영은 이들의 실존 문제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하여 세력을 불리기에 급급했다. 동시에 그들은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인 진보 담론의 분석에서 ‘청년 여성’은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의파’이고 ‘청년 남성’은 ‘강

60) 철학자 크리스타 토마스(Krista K. Thomason)은 분노가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면서도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녀에 따르면 미국의 ‘인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증오는 분노를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자연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데에서 비롯된다. 참조, Krista K. Thomason, *Dancing with the Devil*, 한재호 옮김, 『악마와 함께 춤을. 시기, 질투, 분노는 어떻게 삶의 거름이 되는가』(서울: 흐름출판, 2024), 137-166. 이러한 토마스의 분석은 현재의 한국 청년 남성 이해에 통용될 수 있다.

자에 부화되동하는 불의파'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청년 남성들은 "본인들을 불의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감수하라는 [...] 요구를 감내"해야 한다고 여겨진다.<sup>61)</sup> 한국 개신교회가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 삶의 정황에 공감(sympathy)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감은 그들의 고난(pathos, passion)에 동참(sym-, com-)하는 것이기에 자비(compassion)로 연결된다. 슬라이어마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위로를 전하고 함께할 때, 한국 개신교회는 반공주의와 극우주의가 태동되는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개신교회는 모든 존재를 품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언, 곧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의 틀을 급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복음은 모든 자기동일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망치이며, 약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지향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이기에, 어떤 특정한 '자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질서는 무력화되며, 그 질서로부터 배제되었던 이들의 회복이 가능해진다. 이 점은 성서 전반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느님은 제국과 자기동일성에 기초한 질서로부터 배제된 타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의 고유한 개성과 생존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하느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름 없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셨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사회 체제로부터 소외된 병자들, 여성들, 어린이들, 세리들, 이방인들과 함께하셨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완전한 인간 사랑으로 나아가는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복음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힘 있는

61) 한윤형, "극우화된 청년 남성인가, 청년 남성의 극우화인가: 서부지법 폭동에 놀란 기성 세대를 위한 지형도 설명," 『기독교 사상』 796(2025), 46.

자들에 의해 소외된 자들, 자기중심적 질서의 희생자들 곁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개신교회가 복음을 진정으로 따르고 증언한다는 것은 오늘날 자기중심주의적 국가 질서에 의해 배제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이는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과 국가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한다.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는 특정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증언이야말로 극우주의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공감과 자비이다. 그들의 타자 배척과 폭력은 자기동일성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되며, 그 자기동일성은 결국 자기중심주의라는 폐쇄적 질서를 낳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의 실존적 불안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전체가 이념을 일깨우는 힘이다. 복음을 통하여 극우주의에 휩싸인 자들이 매달리고 집착하는 ‘자기’가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이 분명해질 때, 그동안 자신들이 소외시켜 온 타자가 하느님 안에서 참된 형제자매임을 자각될 때, 그들은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개신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따라 사회 속 약자와 함께 하는 삶, 그들 편을 드는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때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의 상대성이 명확해지고 자기중심주의가 해체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

셋째, 한국 개신교회는 서로를 붙잡히 여기는 자비와 하나됨을 보여주는 모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워지는 때는 [...] 하느님의 미래를 투명하게 비추어 보일 때,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비출 때”이다.<sup>62)</sup> 그리스도교회는 하느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하며 함께 짐을 짊어지는 공동체이다.<sup>63)</sup> 따라서 그리스도교

62) Williams,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 181.

회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위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늘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궤적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자비와 함께함, 그리고 하나가 되어 나가는 발전을 포함하는 연대함(solidarity)을 세상에 실제로 보여주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sup>64)</sup> 한국 개신교회는 상호 소통과 연대함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 내의 민주화와 다양한 의견이 표명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교단은 여성의 목사 안수 및 장로 임직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그들의 의견이 교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회 중심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이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회가 서로를 위한 실정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피와 살이 된 진리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는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현실화로 세상을 초대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범 공동체, 언어와 개념을 넘어 삶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반공주의와 극우주의를 배태한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은 타자를 통하여 온전한 전체를 떠올리게 하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구현하는 그리스도교회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회는 불가능

63) 참조, Dietrich Bonhoeffer,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이신건·유석성 옮김, 『성도의 교제 - 교회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64) 참조, Kwangwoo Park, *Kirche als solidarische Gemeinschaft. Eine ethische Rekonstruktion der Kirchentheorie mit Blick auf die Christliche Sittenlehre von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Wien/Zürich: LIT Verlag, 2023).

65) 이러한 모범윤리학에 대하여 참조, Wilfried Härle, *Ethik*, 김형민 역, 『선의 매혹적인 힘.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이론과 실제』(성남: 북코리아, 2016), 247-250.

한 이상을 언제나 가능하게 만들도록 투쟁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개신교회가 사람들의 실존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주고 복음의 정신을 체현할 때, 자기동일성에 근거한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이 지양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사랑의 지평,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

슐라이어마허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적 이해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전체에 대한 직관을 기초로 내셔널리즘이 터하고 있는 자기동일성에 대한 극복은 개인의 주관적 신앙 결단에 의존적이어서 그것이 과연 보편적으로 가능한 규범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슐라이어마허의 윤리적 구상을 사회 공학 구조, 더 나아가 삶의 생리(生理)적 차원으로 정립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결단이든 상태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체로 돌아가기에, 개인의 윤리적 결단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이행 방향을 존재론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sup>66)</sup>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66) 이에 대하여 참조.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이철·박여성 옮김·노진철 감수, 『사회적 체계들. 일반이론의 개요』 (파주: 한길사, 2020).

## 참고문헌

- 강정인.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 담론: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근대화 민족주의 담론.” 『사회과학연구』 20(2012), 34-72.
- 고영은. “한국교회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52(2016), 867-893.
- 곽호철. “한국 기독교의 민족적 타자 차별에 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신학과 사회』 37(2023), 1-30.
- 박광우. “개성 강조, 대안 공동체 구상, 연대적 관계 제시 - 슬라이어마허의 성령론적 윤리학을 통해 돌아본 현대 한국 개신교 윤리학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60(2025), 11-47.
- \_\_\_\_\_. “개신교회의 사회적 의미 고찰 - 슬라이어마허의 신학적 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74(2024), 49-90.
- \_\_\_\_\_. “애국심과 세계시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연구: 슬라이어마허의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111(2023), 73-109.
- 이병성.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59-190
- 정병준.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6(2022), 5-39.
- 정재현. 『신학은 인간학이다. 철학읽기와 신학하기』.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한상연. 『공감의 존재론』. 서울: 세창, 2019.
- 한운형. “극우화된 청년 남성인가, 청년 남성의 극우화인가: 서부지법 폭동에 놀란 기성세대를 위한 지형도 설명.” 『기독교 사상』 796(2025), 34-50.
- Bonhoeffer, Dietrich.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이신건·유석성 옮김. 『성도의 교제 - 교회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Hegel, Georg W. 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1』. 파주: 한길사, 2009.
- Luhmann, Niklas.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이철·박여성 옮김·노진철 감수. 『사회적 체계들. 일반이론의 개요』. 파주: 한길사,

2020.

Schleiermacher, Friedrich D. E.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최신한 역. 『종교론 -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Thomason, Krista K. *Dancing with the Devil*. 한재호 옮김. 『악마와 함께 춤을. 시기, 질투, 분노는 어떻게 삶의 거름이 되는가』. 서울: 흐름출판, 2024.

Williams, Rowan. *Tokens of Trust*. 김병준 · 민경찬 옮김.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 서울: 비아, 2015.

Grosshans, Hans-Peter. "Gottsverhältnis und Freiheitsgefühl. Schleiermachers Theologie zwischen Neuzeit und Moderne." in Andreas Arndt und Kurt-Victor Selge (Hg.), *Schleiermacher - Denker für die Zukunft des Christentums?* 11-30.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1.

Käfer, Anne. *Inkarnation und Schöpfung. Schöpfungstheologische Voraussetzungen und Implikationen der Christologie bei Luther, Schleiermacher und KarlBarth*.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10.

Park, Kwangwoo. *Kirche als solidarische Gemeinschaft. Eine ethische Rekonstruktion der Kirchentheorie mit Blick auf die Christliche Sittenlehre von Friedrich D. E. Schleiermacher*. Wien/Zürich: LIT Verlag, 2023.

Rose, Miriam. *Schleiermachers Staatslehre*. Tübingen: Mohr Siebeck, 2011.

Schleiermacher, Friedrich D. E. "Wie sehr es die Würde des Menschen erhöht, wenn er mit ganzer Seele an der bürgerlichen Vereinigung hängt, der er angehört."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II/1, *Predigten. Erste bis Vierte Sammlung (1801-1820) mit den Varianten der Neuauflagen (1806-1826)*. hg. Günter Meckenstock. 248-264.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2.

\_\_\_\_\_. "Brief an J. E. Th. von Willich. Halle, Montag, 15. 9. 1806."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V/9, *Briefwechsel 1806-1807*. hg. von Andreas Arndt und Simon Geber. 138-140. Berlin: Walter de Gruyter, 2011.

\_\_\_\_\_. *Christliche Sittenlehre (Vorlesung im Wintersemester 1826/27). Nach gräfstenteils unveröffentlichten Hörernachschriften und nach teilweise unveröffentlichten Manuskripten Schleiermachers*. hg. u. eingel. von Hermann Peiter. Berlin: LIT Verlag, 2011.

- \_\_\_\_\_.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 dargestellt. Zweite Auflage (1830/31)*.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13,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 dargestellt. Zweite Auflage (1830/31)*. hg. von Rolf Schäfer. Bd. 1 und Bd. 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 \_\_\_\_\_. *Grundlinien einer Kritik der bisherigen Sittenlehre*.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4, *Schriften aus der Stolper Zeit (1802-1804)*. hg. von Eilert Herms, Günter Meckenstock und Michael Pietsch. 27-357.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 \_\_\_\_\_. “Über den Begriff des höchsten Gutes, Erste Abhandlung.”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11, *Akademievorträge*. hg. von Martin Rössler unter Mitwirkung von Lars Emersleben. 535-55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 \_\_\_\_\_. “Die Lehre vom Staat (Nachschriften Heß und Willich, 1829).”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I/8, *Vorlesungen über die Lehre vom Staat*. hg. von Walter Jaeschke. 377-491.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8.
- \_\_\_\_\_. *Monologen. Eine Neujahrsgabe*.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3, *Schriften aus Berliner Zeit (1800-1802)*. hg. von Günter Meckenstock. 1-61.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 \_\_\_\_\_. “Anmerkungen zur Nikomachischen Ethik.”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1, *Jugendschriften 1787-1796*. hg. von Günter Meckenstock. 1-4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4.
- \_\_\_\_\_. *Brouillon zur Ethik (1805/06)*. Auf d. Grundlage d. Ausg. von Otto Braun. hg. u. eingel. von Hans-Joachim Birkner. Hamburg: Meiner, 1981.
- \_\_\_\_\_. *Ethik (1812/13) mit späteren Fassungen der Einleitung, Güterlehre und Pflichtenlehre*. Auf d. Grundlage d. Ausg. von Otto Braun. hg. u. eingel. von Hans-Joachim Birkner. Hamburg: Meiner, 1981.
- \_\_\_\_\_.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Erste Auflage (1821/22)*, in ders., *Kritische Gesamtausgabe* I/7, *Der christliche Glaub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 im Zusammenhange dargestellt. Erste Auflage (1821/22).* hg. von Hermann Peiter, Bd. 1 und 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0.

\_\_\_\_\_. *Die christliche Sitt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Zusammenhang dargestellt.* in ders. *Sämmtliche Werke* 1/12, *Die christliche Sitte nach den Grundsätzen der evangelischen Kirchen im Zusammenhang dargestellt.* hg. von Ludwig Jonas, Berlin: G. Reimer, 1843.

Schlenke, Dorothee. „*Geist und Gemeinschaft*“ *Die systematische Bedeutung der Pneumalogie für Friedrich Schleiermachers Theorie der christlichen Frömmigkeit.*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논문투고일: 202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슬라이어마허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개신교회의 국가 주도 내셔널리즘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슬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최고선을 향한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을 특정 동일성으로 묶는 내셔널리즘은 자기의식과 윤리적 삶의 출발점이 된다. 전체에 대한 경외와 자기비움을 개성으로 드러내는 종교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스도교는 국가의 윤리적 의의를 인정하나,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 국가의 자기절대화를 저지한다. 이에 한국 개신교회는 내셔널리즘의 역사적 형성 배경에 대한 비판적 공감, 복음을 통한 자기중심성 해체, 그리고 내셔널리즘 초월의 모범 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주제어:** 슬라이어마허, 내셔널리즘, 개성, 자기비움, 타자와의 연대

---